

시게이트, 싱가포르에 세번째 플래터 공장 건설로 전략적 투자 확대

시게이트가 싱가포르에 세번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용 플래터 공장을 건설,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레드헤빙에 따르면 시게이트는 2년 후인 2008년 상반기까지 8억1900만달러를 들여 우드랜드 지역 공장 근처에 세번째 플래터 공장을 건설,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플래터는 하드디스크 내부에 있는 얇고 둥근 판 형태의 부품으로 데이터 저장기능을 갖는다.

시게이트는 공장 운영 초기엔 1000명 규모의 즉각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약 4년 후엔 최대 생산 규모에 도달, 3000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왓킨스 시게이트 최고경영자(CEO)는 “싱가포르는 시게이트의 핵심 전략 지역이었다”며 “(공장 건설은) 싱가포르를 시게이트의 핵심적인 제조 허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에도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게이트는 작년에만 1억1900만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출하한 세계 1위 HDD 제조사이며 자체적으로 부품 제조 공장을 소유하는 수직계열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 최대 110인치 HD TV 나왔다



9월 28일 일본빅터(JVC)가 도쿄의 자사 쇼룸에서 새로 개발한 세계 최대형 110인치 리어프로젝션TV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완전 고선명 화질을 지원하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사형 LCD 소자를 탑재했다. 화면 크기는 가로 2.43m·세로 1.37m이며 소비전력은 220W이다. 기존의 60인치 이상 제품의 소비전력(600~1500W)보다 훨씬 낮다.

중국 ‘인공태양’ 개발 성공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열 핵융합 반응 실험로의 방전 시험에 성공, 청정에너지원인 ‘인공태양’ 개발에 한걸음 다가갔다.

신화통신은 중국 과학원(CAS) 산하 플라즈마물리연구소가 ‘초전도 토카막 열 핵융합 실험로(EAST)의 첫 구동 시험에서 약 3초동안 200킬로암페어(KA)의 전력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리 지안강 플라즈마물리연구소장은 테스트 결과가 과학자들의 예상과 일치했으며 “우리가 경쟁자들을 최소한 10년은 앞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수소(D)와 삼중수소(T)를 섭씨 1억도로 가열, 초고온에서 전자와 핵이 분리된 채 고루 섞여 분포된 상태인 플라즈마를 만들면 원자핵이 융합, 질량결손이 발생한다.

이때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열 핵융합이며 1g의 해수에서 추출한 중수소의 열 핵융합 에너지는 300g

의 가솔린을 태울 때의 열 에너지와 동일하다.

그러나 지구에는 섭씨 1억도에 견디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 안에 열을 가두는 방법이 사용되며 이와 같은 방식의 핵융합 실험로가 토카막(TOKAMAK)이다.

중국은 EAST를 통해 궁극적으로 1000초 동안 유지되는 플라즈마를 만들 계획이다.

야후, HP 컴퓨터에 검색 서비스 제공 키로

인터넷 검색업체 야후가 HP의 컴퓨터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야후는 HP가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하는 PC에 자사의 검색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야후는 HP가 두 회사의 브랜드를 함께 사용한 인터넷 툴바를 이 PC에 제공하고, HP의 일반 소비자용 PC 및 노트북에 탑재될 MS의 최신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이하 IE 7에서 야후를 기본 검색 서비스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HP의 PC를 구입하는 사용자들은 야후의 검색·e메일·뉴스·금융 서비스와 즉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야후는 최근 세계 노트북 시장 4위인 대만의 에이서와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고, 영국·캐나다·미국의 주요 광대역 통신사업자들에게도 자사 웹 검색 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야후의 최대 경쟁사인 구글도 델·어도비 시스템스·인튜이트·뉴스코프 등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야후와 구글은 새로 나올 IE 7에 설정될 기본 검색 엔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차세대 DVD 포맷 모두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 양산기술 개발

블루레이와 HD DVD 간 차세대 DVD 포맷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가능성을 가진 신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월 26일 영국의 뉴 미디어 엔터프라이즈(NME)가 최고 10개의 층으로 이뤄져 HD DVD와 블루레이용 영화의 동시 저장이 가능한 DVD 디스크의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한장의 디스크에 두 포맷 영화를 모두 저장하는 경우 영화사는 각기 다른 포맷으로 동일한 영화의 DVD를 발매할 필요가 없어지며 소비자는 특정 디스크 포맷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보도에 따르면 NME 기술을 사용한 다층 DVD의 제조 비용은 약 9센트 정도로 표준 단층 DVD 제조 비용보다 3센트 밖에 비싸지 않다. 기존 다층 DVD의 제조 비용은 낮은 수율 때문에 표준 DVD 제조 비용의 3~5배에 이르렀다.

유진 레비치 NME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다층 디스크를 생산을 위한 기존 기술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우리는 낮은 수율 문제를 극복한 다층 디스크의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광학디스크 제조사인 독일의 ODMS도 NME의 기술이 이전보다 진보된 것이며 내년 초까지 NME 기술을 사용한 디스크 생산 라인의 초기모델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드란코 도빅 ODMS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2개층 DVD 디스크 수율은 50% 이하지만 NME 기술은 수율이 훨씬 높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교세라 · IBM, OA기기용 OS 공동 개발

교세라와 IBM이 사무자동화(OA)기기용

기본 운영 체제(OS)를 공동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세라미터와 IBM 재팬은 내달부터 2년간의 노력끝에 개발한 OS를 복사기 · 프린터 · 팩스를 합친 복합기에 장착해 수출한다.

복합기에 탑재될 OS 명칭은 ‘와이즈코어’로 PC없이도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고 사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와이즈코어는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에 기반하며 PC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기능을 복합기에 설정한다.

예를 들어 문서를 읽어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e메일로 밖으로 전송하는 등 복잡한 작업을 복합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IBM의 DB소프트웨어(SW)인 ‘DB2’와도 호환돼 문서 및 경리서류를 기업 내부에서나 거처쳐 복합기와도 공유된다.

교세라의 범용 OS는 자사 고유의 OS를 제품에 장착하는 OA기기 업체들의 관행을 깬 것이다.

샤프, 보는 각도에 따라 동시에 3개 이미지 표시 LCD 개발



샤프가 세계최초로 보는 방향에 따라 동시에 3개의 다른 이미지를 표시하는 액정

디스플레이(LCD)를 개발했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제품은 독자적인 시차 차단 장치를 사용, 빛을 3방향으로 나눠 좌 · 우 · 정면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다

샤프는 이 제품으로 운전석에서는 내비게이션이지만 조수석에서는 쇼핑 채널, 뒷자석에서는 영화 채널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다른 광고를 동시에 띄우는 광고판, 방향 지시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프는 작년에도 두개의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제품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 제품이 이미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 중국 노이소프트에 4000만달러 투자

인텔이 중국 SW · 솔루션 업체인 노이소프트에 4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9월 27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자사 벤처캐피털 부문을 통해 투자하며 이는 인텔의 중국 투자 벤처캐피털이 설립된 이래 최대 투자 규모다.

관계자는 두 회사가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투자금은 노이소프트의 하드웨어(HW) · 소프트웨어(SW) 통합 서비스 확장과 교육 · 훈련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인텔이 △제품 개발 △관련 SW 제품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회사가 △헬스케어 제품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 디자인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